

청주지역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to Life and Clothing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ongju

최종명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Choi, Jong Myo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justment to life(school life, personal relations, home life, economic problem and time management), the clothing attitudes(status symbolism, fashionability, aesthetics, modesty, conformity, comfort aspect) and the clothing satisfaction.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56 university students in Chongju city to measure the demographic information, the adjustment to life and the clothing attitudes. As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ie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university students showed average state on the adjustment to their life. The adjustment to their home life and family was showed higher than other aspects, otherwise that to school life was showed lower than the others.
2.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of students on each aspect of the adjustment to life.
3. The university students showed moderate interest toward clothing attitudes. In the clothing attitudes, the interest toward comfort aspect was showed higher than other aspects, otherwise that toward conformity aspect was showed lower than the others.
4.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of students on each variable of the clothing attitudes.
5.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each aspect of the adjustment and the clothing attitudes aspects.

Key words: adjustment to life, clothing attitudes, clothing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Jong Myoung Choi
Tel. (0431)261-8412, Fax. (0431)261-8412
E-mail: jmchoi@dragon.seowon.ac.kr

I. 서론

청년기는 12~13세부터 21~22세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대체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전기와 대학교 시기인 청년후기로 나누고 있는데(민영순, 1979; 김성태, 1983),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김성태, 1983), 지속적인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Drake & Ford, 1979)이다. 이처럼 이 시기는 적응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과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적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응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준,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민영순, 1979). 그래서 Schaffer(1936)에 의하면 적응한다는 것을 첫째,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는 실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둘째, 환경과 개인의 전체적인 환경을 살피고 조화시켜서 보다 높은 만족을 가져오게 하며, 셋째, 사회의 규범에 합치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조명희·박수선, 1998 재인용).

대학생활 적응은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대학생이 되면 다양한 새로운 상황들을 접하게 된다. 즉, 자아확립의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내외의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보다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학에서 맞이하게 되는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갑자기 넓어진 대인관계 상황에 당황해 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조명희 등, 1998). 대학생은 성인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는 성숙되지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청년기의 과도기적 혼란을 대학에서 겪게 된다. 여기에 중·고등학교 시기의 지시와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으로부터 스스로 책임지며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

간 속에서 새로이 부딪쳐야 하는 다양한 대인관계,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 자기 탐색, 대학에서의 학습과 학문탐구, 대학 졸업후의 진로문제, 결혼 준비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적응하고 부딪치면서 새로이 자신을 발견해 나가거나 이겨나가는 지혜를 얻으면서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자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집단의 사고 및 행동양식에 쉽게 따른다고 하였고(장병림, 1980),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며 마찰을 덜 일으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많이 받으므로 인지적으로 단순한 사람보다 사회적응을 더 잘 한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손정락, 1978). 대학생의 경우 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은 신체 및 건강, 경제, 부모 및 가정, 대인관계, 성격, 학업생활, 교양 및 여가, 진로 및 취업, 종교 및 가치관 등이었고(이혜성 등, 1989), 이러한 영역 중에서 대학생은 학업생활, 건강, 교양 및 여가, 진로 및 취업, 종교와 가치관, 경제, 대인관계, 부모 및 가정 등의 순으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필호·이은순·강순화·이은경, 1996 재인용), 소속대학에의 적응, 학업동기, 심리적 문제, 교우관계가 대학 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한덕웅·전경규·이창호, 1991).

한편, 사람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접촉이 사회화의 기본이 되며,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외모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관심과 태도, 특정한 옷을 선택하는 이유, 인간행동에 미치는 의복의 영향, 그리고 의복을 인식하는 방법 등은 모두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복행동이라는 영역으로서 연구되어 왔다(이영선, 1981). Sproles(1979)에 의하면 의복에 대한 태도는 의복의 스타일과 같은 특정대상이나 의복착용과 같은 특정상황에 대해 특정방법으로 행동하려는 기질이라고 하였고, 강혜원 등(1988)은 의복에 대한 태도, 신념, 지식과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자신의 의복이나 타인이 착용한 의복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박혜선(1995)은 개인이 의복

에 대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복태도 변인으로서 실용성, 경제성, 정숙성, 심미성, 유행성, 동조성과 개성, 신분상징성, 중요성, 만족을 제시하였는데, 남자 대학생은 의복의 실용·안락감을 중시하는 반면 신분상징성에 대한 관심을 적었고(남미우·고애란, 1995), 성인의 경우에는 의복에 대해서 편안함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반면 동조성에 대한 관심은 낮았고 인구 통계적 변인 중에서 성별, 교육수준, 월 평균 의복비에 따라 의복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박혜선·김화순, 1998).

Rosencranz(1972)에 의하면 인간은 자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그들의 행동을 적응시켜 나가며 환경에 대한 인지는 어떤 명백한 계기에 의해 알려질 수 있는데 의복이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의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중요성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생활을 통해서 그 중요성과 흥미를 다르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Hurlock, 1976). Drake와 Ford(1979)는 의복에 대한 불만족과 타인을 위한 의복행위는 자아수용과 부적인 관계가 있고 의복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적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의복은 자신이 지닌 가치관 이외에도 사회적 수용이나 사회활동과도 관련되어 있어(Ford와 Drake, 1981), 사회적 안전감이 높은 대학생은 개성을 표현하는 의복에 관심이 높았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대학생은 추종성에 관심이 높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개성, 유행,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강혜원, 1974), 교우관계가 활발하고 원만한 여고생은 전반적인 의복행동에 더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고(최순자, 1983), 여대생의 의복에 대한 만족, 외모의 만족, 여가이용과 사회활동 참여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었다(김계숙, 1976). 따라서 의복행동의 모방은 자기 자신을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며 착용한 의복은 자아수용, 자존심, 자만심 등의 자기감정과 관계가 있으며(Horn, 1981), 청년기에서 의복은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동료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생존경쟁을 위하여 조정될 수 있는 도구라고 하였다(Roach, 1969).

이처럼 청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윤진, 1993),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의복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은 중·고교 시기 학교별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기준으로 의복을 선택·착용하게 되어 자신의 외모 및 의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게 되므로 의복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생활적응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주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적응과 의복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청주시내의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었다. 1998년 9월에 예비조사를 하여 질문을 보완한 다음, 11월 5일부터 11월 30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여 총 456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 5점 Likert 형의 생활적응, 의복태도와 의생활 만족도 문항 및 선다형의 인구 통계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적응 문항은 선행연구(한덕용 등, 1991; 오필호 등, 1996)를 토대로 하여 학교생활, 대인관계, 가정/가족, 경제적 측면, 여가/시간관리 영역의 5개 하위척도 5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의복태도와 의생활 만족도는 선행연구(강혜원, 1974; 고애란, 1990; 고애란, 심정은, 1998)를 참고로 하여

〈표 1〉 조사대상의 분포

구	분	n	%	계 ¹⁾ (%)
성 별	남	209	45.8	456(100)
	여	247	54.2	
전 공	인문·사회계열	175	38.4	456(100)
	자연계열	123	27.0	
	예술계열	80	17.5	
	가정계열 ²⁾	78	17.1	
학 년	1학년	169	37.1	456(100)
	2학년	91	20.0	
	3학년	150	32.9	
	4학년	46	10.1	
거 주 형 태	자택	145	31.8	456(100)
	하숙	47	10.3	
	자취	154	33.8	
	기숙사	110	24.1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44	10.0	438(100)
	101~200만원	206	47.0	
	201~300만원	117	26.7	
	301만원 이상	71	16.3	
월 평균 용돈	10만원 이하	33	7.3	453(100)
	11~20만원	184	40.6	
	21~30만원	142	31.3	
	31~40만원	63	13.9	
	41만원 이상	31	6.9	
성 장 지 (중·고교시절)	대도시	123	27.0	456(100)
	중소도시	269	59.0	
	읍·면	64	14.0	
동아리 활동	참여한다	178	39.4	452(100)
	안한다	274	60.6	
종 교	개신교	78	17.1	456(100)
	천주교	122	26.8	
	불교	64	14.0	
	기타	6	1.3	
	없다	186	40.8	
교제하는 이성친구	유	218	48.1	453(100)
	무	235	51.9	

1) missing cases로 인해 차이가 있음.

2) 의생활 관련학과는 제외하였음.

의복태도는 심미성, 안락감, 동조성, 유행, 정숙성, 상징성 등의 6개 하위척도 30문항이었고 의생활 만족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 <표 2>와 같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여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생활적응, 의복태도 및 의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F-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고, 의복태도와 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 생활적응과 의복태도 운항의 신뢰도

변인	신뢰도 (α)	
생활적응	학교생활	0.78
	대인관계	0.73
	가정/가족	0.83
	경제적 측면	0.87
	여가/시간	0.83
	생활적응 전체	0.91
의복태도	심미성	0.78
	안락감	0.68
	동조성	0.63
	유행	0.79
	정숙성	0.71
	상징성	0.78
	의복태도 전체	0.74
의생활 만족도	0.68	

III. 결과 및 고찰

1. 대학생의 생활적응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전체 생활적응 정도는 평균점수가 3.19로 적응력은 보통이었다. 이를 생활적응 각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가정/가족 영역에 대한 적응력의 평균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대인관계(3.41), 경제적 측면(3.19)의 순서이었고, 학업생활에 대한 적응은 평균이 2.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오필호 등(1996)의 연구에서 가족이나 대인에 대한 적응이 높은 반면 학업생활에 대한 적응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F-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적응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학교생활 적응은 성별, 전공계열,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학생보다는 남자 대학생의 적응력이 높았고, 자연계열 대학생의 적응력이 가장 높은 반면 가정계열은 가장 낮으며, 저학년년에 비해 고학년의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가정의 월 평균 소득과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여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가 있는 대학생이 대인관

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지가 읍·면인 경우와 집을 떠나 대학생활을 하는 대학생 그리고 종교를 가진 대학생이 비교적 가정생활과 가족에 대한 적응을 잘 하고 있으며, 남자 대학생, 고학년, 월 평균 소득과 용돈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시간관리는 성별, 전공계열, 학년 및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자 대학생, 예술계열 대학생, 고학년인 경우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자신의 여가와 시간관리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고학년의 경우 그동안의 대학생활 경험에 의해 저학년보다는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아리 활동에 여가시간을 보냄으로써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남자 대학생과 고학년,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종교를 가진 경우가 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의복태도와 의생활 만족도

1)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태도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전체 의복태도는 평균 점수가 2.98로 의복에 대해서 보통 정도의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었다. 이를 의복태도 각 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의복의 안락감 측면에 대한 관심이 평균 3.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심미성(3.21), 정숙성(2.86)의 순서이었고, 동조성(2.28)에 대한 관심은 가장 낮

(표 3)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생활적응의 차이

구 분		생활 적응 영역					전 체
		학교생활	대인관계	가정/가족	경제적	여가/시간	
성 별	남(n=209)	2.861)	3.41	3.70	3.35	3.01	3.27
	여(n=247)	2.68	3.41	3.79	3.06	2.76	3.13
	t-value	2.93**	-0.13	-1.64	4.37***	3.95***	3.46***
전공 계열	인문사회(n=175)	2.77 b	3.38	3.66	3.18	2.92 ab	3.21
	자연(n=123)	2.90 b	3.39	3.73	3.23	2.81 ab	3.19
	예술(n=80)	2.78 b	3.42	3.76	3.12	3.03 b	3.22
	가정(n=78)	2.52 a	3.43	3.90	3.22	2.73 a	3.15
	F-value	5.71***	0.27	2.25	0.46	3.20*	0.38
학 년	저 학년(n=260)	2.70	3.38	3.71	3.12	2.82	3.14
	고 학년(n=196)	2.85	3.45	3.78	3.28	2.95	3.27
	F-value	-2.61**	-1.48	-1.14	-2.29*	-1.98*	-3.01**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n=44)	2.72	3.23 a	3.69	2.88 a	2.77	3.04 a
	101-200만원(n=206)	2.72	3.28 ab	3.72	3.11 ab	2.87	3.17 ab
	201-300만원(n=117)	2.78	3.52 ab	3.77	3.25 bc	2.91	3.25 b
	301만원이상(n=71)	2.79	3.42 b	3.79	3.44 c	2.90	3.24 b
	F-value	0.28	3.41*	0.44	7.92***	0.48	3.36*
월평균 용돈	10만원이하(n=33)	2.50	3.31	3.71	2.71 a	2.77	2.98 a
	11-20만원(n=184)	2.78	3.39	3.79	3.08 b	2.87	3.18 b
	21-30만원(n=142)	2.80	3.46	3.70	3.21 bc	2.87	3.21 b
	31만원이상(n=94)	2.78	3.41	3.75	3.52 c	2.96	3.28 b
	F-value	1.97	0.80	0.53	14.40***	0.87	4.52**
거주 형태	자 가(n=145)	2.70	3.45	3.59	3.24	2.87	3.17
	비자가(n=311)	2.80	3.39	3.81	3.16	2.87	3.21
	t-value	-1.54	1.09	-3.39***	1.04	-0.24	-0.77
성장지	대 도시(n=123)	2.80	3.43	3.75 a	3.26	2.86	3.20
	중소도시(n=269)	2.75	3.43	3.69 ab	3.17	2.88	3.19
	읍 면(n=64)	2.78	3.29	3.97 b	3.12	2.88	3.21
	F-value	0.26	1.93	5.08**	1.11	0.04	0.13
동아리 활동	참여한다(n=178)	2.83	3.46	3.74	3.18	3.06	3.26
	안 한다(n=274)	2.72	3.37	3.75	3.19	2.75	3.15
	t-value	1.85	1.69	-0.16	-0.12	4.83***	2.81**
종 교	유(n=270)	2.75	3.44	3.82	3.22	2.92	3.23
	무(n=186)	2.79	3.36	3.63	3.15	2.81	3.15
	t-value	-0.66	1.60	3.10**	1.00	1.70	1.97*
이성 친구	유(n=218)	2.77	3.48	3.74	3.19	2.90	3.21
	무(n=235)	2.76	3.35	3.75	3.18	2.85	3.18
	t-value	0.08	2.42*	-0.22	0.19	0.80	0.81
계 (평균)		2.76	3.41	3.74	3.19	2.87	3.19

* p<.05, ** p<.01, *** p<.001.

- 1) 각 영역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2) abc는 Scheffé 검정에 의한 결과이며,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주지역의 대학생은 의복에 대한 태도 중에서 편안함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도 전반적으로 의복에 대하여 편안함을 중시한 반면, 동조성에 대한 관심은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박혜선 등, 1998)와 남자 대학생도 의복의 안락감을 중요시하였다는 연구결과(남미우 등, 1995)와도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F-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의복태도 각 변인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은 의복의 동조성 측면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 대학생은 안락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심미성, 유행, 정숙성, 상징성에서는 여학생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의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박혜선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의 정숙성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원미숙 등(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의복의 안락감, 동조성, 유행성, 정숙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예술계열의 대학생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의복의 안락감과 동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가정계열 학생은 유행에 관심이 많고 정숙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유행하는 의복에 관심이 많고 상징성을 중요시하였지만, 의복의 안락감은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 평균 소득과 개인의 용돈이 많을수록 의복의 유행과 상징성에 관심이 많고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여유가 많을수록 새로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의복의 안락감에 관심이 많았고, 대도시 출신의 대학생이 유행에 관심이 많은 반면 정숙성 측면에 대한 관심은 적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의복의 동조성 측면을 보다 중요시하였고 종교를 가진 대학생이 심미성에 관심이 많았다. 여기서 대도시 출신의 대학생은 유행하는 의복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성인

의 경우 거주지에 따른 의복태도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박혜선, 1998)를 미루어 볼 때 의복태도는 중·고교시절의 성장지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의복의 심미성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안락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는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성별, 전공계열, 학년, 경제적 수준의 순서로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생활 만족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의생활 만족도 평균점수는 3.18로 보통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성별, 학년, 월 평균 소득과 용돈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보다는 남자 대학생이 의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의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높고 월 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자신의 의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계열, 이성친구, 동아리 활동 등에 따른 의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대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의생활에 대한 불만 또한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에 따라 의복을 소지하려는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의생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고교시절 성장지에 따라 의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도시 출신 대학생의 의생활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가 의복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고 유행에도 민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3.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1) 남자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의복태도

남자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측정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생활적응 영역과 의복태도 변인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

〈표 4〉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구 분		의복태도변인						의생활 만족도
		심미성	안락감	동조성	유 행	장속성	상징성	
성 별	남(n=209)	3.04	3.54	2.26	2.51	2.61	2.35	3.39
	여(n=247)	3.35	3.14	2.30	2.89	3.07	2.60	3.01
	t-value	-4.41***	5.60***	-0.56	-5.26***	-5.86***	-3.04**	6.21***
전 계 공 업	인문사회(n=175)	3.23	3.30 ab	2.26 ab	2.71 ab	2.87 a	2.46	3.21
	자 연(n=123)	3.15	3.31 ab	2.13 a	2.57 a	2.70 a	2.44	3.21
	예 술(n= 80)	2.18	3.51 b	2.48 b	2.72 ab	2.64 a	2.46	3.21
	가 정(n= 78)	3.28	3.17 a	2.36 ab	2.96 b	3.31 b	2.65	3.05
	F-value	0.49	2.78*	5.22***	3.85**	11.30***	1.22	1.28
학 년	저 학년(n=260)	3.22	3.31	2.33	2.71	2.92	2.50	3.14
	고 학년(n=196)	3.20	3.32	2.21	2.73	2.79	2.47	3.24
	t-value	0.58	3.14*	1.98	3.82**	1.64	3.51**	3.87**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이하(n= 33)	3.07	3.40	2.15	2.42 a	2.88	2.32 a	3.05 a
	101-200만원(n=206)	3.16	3.37	2.31	2.69 ab	2.87	2.40 ab	3.10 ab
	201-300만원(n=117)	3.31	3.24	2.26	2.79 b	2.80	2.54 ab	3.25 ab
	301만원이상(n= 71)	3.25	3.25	2.32	2.82 b	2.91	2.69 b	3.35 b
	F-value	1.55	1.23	0.79	2.88*	0.32	3.03*	3.93**
월 평 균 용 돈	10만원이하(n= 33)	3.20	3.50	2.29	2.56 a	3.05 b	2.38 a	3.05 a
	11-20만원(n=184)	3.15	3.35	2.32	2.70 ab	2.97 ab	2.43 ab	3.09 ab
	21-30만원(n=142)	3.22	3.28	2.20	2.65 ab	3.83 ab	2.44 ab	3.16 ab
	31만원이상(n= 94)	3.30	3.25	2.33	2.91 b	2.63 a	2.71 b	3.43 b
	F-value	0.88	1.22	1.13	2.71*	4.16**	2.87*	6.05***
거 주 태	자 가(n=145)	3.28	3.20	2.21	2.72	2.85	2.53	3.23
	비자가(n=311)	3.18	3.37	2.31	2.72	2.87	2.47	3.16
	t-value	1.32	-2.37*	-1.48	-0.00	-0.22	0.77	0.94
성 장 지	대도시(n=123)	3.27	3.40	2.35	2.87 b	2.84 a	2.59	3.27 b
	중소도시(n=269)	3.22	3.27	2.24	2.69 ab	2.81 a	2.46	3.18 ab
	읍 면(n= 64)	3.03	3.37	2.35	2.54 a	3.13 b	2.38	3.03 a
	F-value	2.12	1.48	1.56	3.80*	3.95*	1.53	2.63
동 아 리 활 동	참여한다(n=178)	3.18	3.38	2.37	2.64	2.86	2.49	3.15
	안 한다(n=274)	3.23	3.28	2.22	2.77	2.87	2.49	3.21
	t-value	-0.73	1.34	2.38*	-1.74	-0.92	-0.00	-0.91
종 교	유(n=270)	3.27	3.28	2.31	2.77	2.91	2.51	3.20
	무(n=186)	3.11	3.37	2.24	2.65	2.78	2.46	3.15
	t-value	2.15*	-1.22	1.10	1.56	1.64	0.58	0.79
이 성 친 구	유(n=218)	3.29	3.24	2.25	2.78	2.85	2.53	3.21
	무(n=235)	3.14	3.40	2.31	2.66	2.87	2.45	3.16
	t-value	2.11*	-2.26*	-0.91	1.65	-0.26	0.94	0.72
계 (평 균)		3.21	3.32	2.28	2.72	2.86	2.49	3.18

* p<.05, ** p<.01, *** p<.001.

- 1) 각 영역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2) ab는 Scheffé 검정에 의한 결과이며,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과 동조성, 대인관계와 심미성/유행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관계와 동조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의복의 동조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진

남자 대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만 대인관계에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의복의 심미성과 유행을 고려할 경우 대인관계 또한 원만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 남자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n=209)

구분	의복태도 변인						의생활 만족도	
	심미성	안락감	동조성	유행	정숙성	상징성		
생활적응	학교생활	-0.08	0.09	0.15*	0.01	0.13	-0.04	0.05
	대인관계	0.16*	-0.07	-0.15*	0.16*	-0.01	-0.04	0.22**
	가정/가족	0.02	0.10	-0.04	0.03	0.08	-0.12	0.11
	여가/시간	-0.08	0.11	-0.05	0.01	0.12	-0.12	0.17*
	전체	-0.03	0.11	-0.04	0.07	0.12	-0.13	0.23**

* p<.05, ** p<.01.

한편, 의생활 만족도는 대인관계 및 여가/시간 관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의생활에 만족할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여가/시간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남자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2) 여자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의복태도

여자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생활적응 영역과 의복태도 변인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와 심미성/유행, 가정/가족과 안락감/정숙성, 여가/시간과 안락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교생활과 동조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의복의 심미성과 유행에 관심이 많은 여자 대학생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편안하고 정숙한 의복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가진 여자 대학생은 가정/가족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편안한 의복을 중요시하는 여자 대학생은 여가와 시간관리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의생활 만족도는 생활적응 모든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의생활에 대해 만

족하고 있는 여자 대학생인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여가/시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자 대학생의 경우 의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복과 외모의 만족이 여가이용과 사회활동 참여에 상당히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었다는 김재숙(1976)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전체 생활적응은 의복태도 변인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으나, 여자 대학생은 상징성과 안락감 측면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남자 대학생의 의생활 만족도는 대인관계와 여가/시간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여자 대학생은 생활적응 모든 측면에서 의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여자 대학생의 경우 의생활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녀 대학생 모두 의생활에 만족할수록 대인관계와 여가/시간관리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자신의 행동양식을 적응시켜 나가는데 의복이 중요하다고 한 연구(Rosencranz, 1972)와 의복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Ford & Drake, 1979)와 일치하고 있

<표 6> 여자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n=247)

구분	의복태도 변인						의생활 만족도	
	심미성	안락감	동조성	유행	정숙성	상징성		
생활적응	학교생활	-0.08	0.08	-0.13*	-0.08	0.06	-0.08	0.17**
	대인관계	0.19**	-0.06	-0.13*	0.16*	-0.04	-0.08	0.40**
	가정/가족	-0.09	0.17**	-0.07	-0.06	0.18**	-0.08	0.24**
	여가/시간	-0.03	0.22**	0.06	-0.06	0.11	-0.11	0.37**
	전체	-0.05	0.20**	-0.05	-0.04	0.10	-0.16*	0.45**

* p<.05, ** p<.01.

어서 대학생의 생활적응에 의복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적응과 의복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의 차이를 살펴 본 다음, 생활적응과 의복태도와의 관련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적으로 보아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은 보통 정도이었으며, 가정/가족 영역에 대한 적응은 높은 반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낮았다. 또한 생활적응 각 영역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2. 전체적으로 의복에 대해서 보통 정도의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었고, 의복태도 중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반면, 동조성에 대한 관심은 가장 낮았다. 또한 의복태도 각 영역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3. 생활적응 각 영역과 의복태도 각 변인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심미성과 유행은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도와 관련이 있었다.
4. 의복태도 변인에 따른 전체 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자 대학생에서만 안락감과 상징성 측면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나, 남녀 모두 의생활 만족도와 전체 생활적응은 높은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5. 남자 대학생의 의생활 만족도는 대인관계와 여가/시간관리 두 측면의 적응과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여자 대학생의 의생활 만족도는 학교생활, 대인관계, 가정/가족, 여가/시간관리 등 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의복태도 및 의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 몇가지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지역 대학생은 가정과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은 잘 하고 있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여가/시간관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적응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부족한 시설의 확충과 대학의 물리적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과 함께 여가시간 이용과 학교 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의복의 심미성과 유행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 대인관계에 적응을 잘 하고 있고, 만족한 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학생일수록 비교적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의복은 대학생의 경우 생활적응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자신에게 어울리고 상황에 적절한 의복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관리하여 만족한 의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복 또는 의생활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주지역에 한정된 것이므로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주제어 : 생활적응, 의복태도, 의생활 만족도

참 고 문 헌

- 강혜원(1974). 대학생과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1-26.
- 강혜원 · 이은미(1988). 의류학전공 여대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사회심리학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2, 1-10.
- 고애란(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애란 · 심정은(1998). 청소년 후기 여학생의 체형의식과 자아 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 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논총, 12, 33-41.
- 김성태(1983).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 김재숙(1976). 여학생의 의복과 용모의 만족도가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 491-497.
- 남미우 · 고애관(1995). 성인남자의 의복태도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I: 대학생과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4) 279-288.
- 민영순(1979).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박혜선(1995). 의복 태도 변인 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6), 968-983.
- 박혜선 · 김화순(1998). 의복 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2), 279-289.
- 손정락(1978). 인지구조상의 개인차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선학보, 3, 101-118.
- 오필호 · 이은순 · 강순화 · 이은경(1996). 한국 여자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2(2), 5-132.
- 원미숙 · 강혜원(1983).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 역할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7(2), 37-44.
- 윤진(1993). 청소년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서원.
- 이영선(1981). 의복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태도와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병림(1980).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 조명희 · 박수선(1998).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6, 83-100.
- 최순자(1984). 여고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용 · 전경구 · 이창호(1991). 한국대학의 생활환경변화와 대학생활적응.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9, 5-170.
- Drake, M. F. & Ford, M. (1979). Adolescent clothing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5), 283-291.
- Ford, I. M. & Drake, M. F. (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89-196.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urlock, E. 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Arno Press.
- Roach, M. E. (1961). Adolescent dress: Understanding the issu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1(9), 693-697.
- Rosencranz, M. L. (1972). *Clothing concept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Macmillan Co.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proles, G. B. (1979).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송용섭 · 정혜영 역(1986). 패션마케팅. 서울: 법문사, 재인용.